

1. GS-2이론

고스톱 2등(Go Stop-2) 해서 돈 따는 놈 봤나

필자는 고스톱을 잘하지 못한다. 간혹 친구끼리 재미로 하거나 초상집에서 주위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끼어서 하더라도 항상 돈을 잃는 편이다. 주로 옆에서 어깨너머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지내는 편인데, 고스톱게임을 보면서 우리 국가사회에 만연된 사고방식이 GS-2, 마치 고스톱에서 2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세계 제2의 생산국”, “세계 제3의 수출국”, “세계무역 10위권 진입” 등의 구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구호를 접하면서 마치 GS-2를 목표로 하는 듯한 인

상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란 결국 따지고 보면 선진국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뒤쫓는 것들이 아닌가.

고스톱에서 2등 한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 막 스톱을 하려던 참인데”, “마지막 한 장만 맞았어도 되는 건데”, “패가 너무 엉망이어서” 등등이다. 이런 푸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모두 엄연한 2등이다. 돈을 잃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도 마찬가지다. 핵심기술 하나가 모자라서, 또는 고급인력이 부족해서, 또는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안해서, 주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서 기업이 잘 안된다고 한다. 마치 고스톱에서 결정적인 패가 없어서, 하나가 모자라서, 앞 사람이 너무 방해를 해서 돈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2등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몇 개 분야에서는 우리 산업이 세계 2등 근처까지 육박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2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1등의 도움을 받는 2등이 있다.

기업으로 치면 기술을 이전받고, 설비와 핵심부품의 지원을 받아서 2등에 도달하는 것이 이 부류에 속할 것이다.

둘째, 1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2등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2등은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즉, 소니(Sony)의 A/V(오디오-비디오)제품은 언제나 1등을 추구하고 있으나, 마쓰시다(松下) 전기는 전략적으로 2등정책을 쓰고 있다. 마쓰시다는 1등보다 힘을 덜 들이고도 빠른 시간 내에 1등이 하는 것을 바짝 뒤쫓으면서 2등을 하겠다는 기업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한쪽은 깊은 우물을 파고 있고, 다른 한쪽은 넓은 밭을 갈고 있다고 하겠다.

또, 전체적으로는 2등이지만 특정부문에서는 1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샤프(Sharp)사는 전자수첩, 포켓용 계산기 등에서 축적한 액정화면 기술을 이용하여 뷰-캠(View-Cam) 캠코더를 만들었다. 샤프

사의 뷰-캠 캠코더는 소니(Sony)의 핸디(Handy) 캠코더보다 사용편의성 측면에서는 훨씬 앞선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1등과 경합을 하며 선두를 주고받는 2등이 있다. 미국시장에서 경쟁하는 도요다와 혼다 자동차가 이 범주에 들 것이다.

같은 2등이라도 이렇게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2등을 하는 제품은 어떤 2등에 속하는가? 선진국, 혹은 선진기업에서 첨단기술, 핵심기술, 핵심부품, 생산설비의 지원을 받고 이룩한 2등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치 대지주 밑에서 소작농을 하면서 소출이 지주 다음으로 많다고 자랑하는 소작농과 마찬가지로.

■ 우리가 1등인 것도 많다

그렇다면,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하라고 하는가? 매우 답답한 이야기같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하면 1등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된 88올림픽을



개발도상국 제조업의 10대 약순환의 고리

우리 나라 제조업의 현재 주소를 설악산의 폭포수처럼 순식간에 끌려 내려가고 있는 열 개의 얽혀 있는 문제점으로 표현하였다. 외국에서 낙후기술을 도입하고, 이 기술에 걸맞는 노후설비와 핵심부품은 수입하고 있다. 주문자 상표부착(OEM) 제품을 저임금으로 양산 조립해서 남의 브랜드로 팔았기 때문에 독자상표가 없고, 따라서 저소득층을 집중 공략하는 제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십 년 간 제조업을 해도 유통망과 서비스가 없으므로 단골이 없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약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낙후기술 도입을 탈피하고 우리의 독자 고유기술을 창출하는 데 있다.

상기하여 보자. 올림픽에서 1등, 혹은 1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종목이 있었다.

예를 들어, 권투의 경량급, 여자 필드하키, 역도의 일부 체급, 일본과 맞붙은 유도, 중국과 경쟁한 탁구가 이에 속한다. 반면에 확고부동한 1등 종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곧 시범경기로 채택된 태권도였다. 전통 깊은 우승종목이 양궁이며, 우리 신체구조의 장점을 살리고 독특한 훈련방법으로 빙상 강대국과 경쟁하여 1등을 차지한 분야가 쇼트트랙이다.

만일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남이 잘하는 것만을 골라서 언젠가는 우리도 잘할 수 있다고 허황된 구호를 외쳤다면 우리는 종합 4위는커녕 등수에도 들지 못하는 스포츠 후진국으로 전락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출신 선수와 스키종목에서 경쟁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 총알같이 달리는 미국의 100미터 육상선수와 경주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어릴 때부터 체조선수로 육성된 동구권의 체조요정들과 경쟁하려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스포츠는 우리 나라 기업에 비해서 매

우 선진국권에 진입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태권도는 세계 최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고, 양궁과 탁구, 마라톤은 세계 1등을 연이어 쟁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영과 육상은 당분간 금메달 구호를 삼가하고 있지 않은가.

반면 우리 사회와 기업은 스포츠에 비하여 경쟁과 평가가 없다. 실적이 나쁘다고 처벌되지도 않으며, 선수들의 기록보다는 임원들 입장에서 치러지는 친선 체육대회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 기업은 미국의 앞선 소프트웨어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제패한 일본의 전자제품을 특별한 대책없이 따라 만들고 있다. 우리 기업이 스포츠 분야와 같은 전략을 택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 1등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세계 각국의 경영자들로부터 이상으로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잭 웰치(Jack Welch) 회장이 있다. 그가 그토록 유명해지게 된 전략은 고스톱을 즐기는 우리가 훨씬 먼저 할 수도 있었을 내용이다. 잭 웰치는 제네럴 일렉

트릭(GE)사의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현재 1등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1등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인가. 이 정도 이야기는 잠시 틈만 나면 고스톱을 즐기는 우리로서는 몸에 체득하고 있는 상식이다. 즉, 스톱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는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얼른 죽지 않는가.

잭 웰치는 그후 약 10여 년의 노력 끝에 세계 제일의 초일류기업을 이룬 금세기 최대의 경영철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을 이루는 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얼마나 빠른가. 우리가 5개년 계획을 두 번 논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세계 초일류기업을 만든 것이다.

일전에 한강포럼이라는 모임에 나가서 그곳에 모인 기업체 경영자들에게 잭 웰치 회장 이야기를 하고 다 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곳에 모인 사장님들 중에서 잭 웰치가 포기하지 않았을 만한 세계 1등, 혹은 1등에 근접한 세계 2등 기업을 맡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아무리 잘해도 세계적인 일류가 될 가망이 없으면 아예 착수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서 2등을 하더라도 돈을 잃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다면 GS-1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느 한구석이라도 1등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굳혀야 한다. 수학,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은 예능과목, 특기활동, 혹은 사회봉사 측면에서, 음식솜씨가 뒤지는 주부는 별식요리솜씨에서, 업무실력이 떨어지는 젊은 사원은 하다못해 야유회에서라도 GS-1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국가사회의 GS-1전략은 매우 간단한 셈이다. 정부는 “세계에서 이것만은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를 올림픽종목으로 채택시킨 저력있는 민족이 아닌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임을 창조하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이다.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이것만은 한국제품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창조하여야 한다. 대학은 전 세계 명문대학으로부터 “이 분야만은 한국대학에 가서 배워야 한다”고 인정받는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1등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이다. 출전 선수가 극히 제한된 경기일수록 1등 할 가능성이 높으며, 혼자서 출전한 선수는 무조건 1등인 것이다. 만일 이런 것이 얼른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GS-1이 되는 지름길이다.

GS-2이론으로 풀어 본 우리의 국가사회, 기업, 개인의 발전과 관련된 우리의 앞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밝기만 하다. 우리는 고스톱을 잘하기 때문이다.

2. P-2이론

포커게임에서는
2등 한 사람(Poker-2)이 제일 먼저 망한다

필자가 다녔던 공과대학은 배밭이 많았던 공릉동에 있었다. 당시 기숙사에서는 포커가 꽤 유행하고 있었다. 새학기가 되면 누구는 어제 포커게임에서 등록금을 날렸느니, 누구는 포커 장학금을 탔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은 화제가 되었다. 대학생 때 포커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실력없는 사람이 별 생각없이 게임에 참가하여 2등을 하면 제일 먼저 망한다는 것이다.

■ 우리가 할 포커게임은 비신사적이다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글로벌(Global) 경쟁은 비신사적이다. 모든 국가들이 동일 선상에서 동일한 조건